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광주 7/10℃ 목포 7/11℃ 여수 7/9℃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단기 4343년 (음력 2월 8일)
제18630호 1판 2010년 3월 23일 화요일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 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일사불란 대구경북 사분오열 광주전남

대구경북 내달 예산심의 앞두고 국회의원들 TF팀 구성

광주전남 선거 몰입 예산확보 뒷전…"지역발전 걱정된다"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대구 등 다른 지방 정치권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특별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6·2지방선거에 앞다퉈 출마하거나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줄세우기에 열중하고 있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 신청서를 제출받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심의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는 각 부처를 상대로 국비 예산 확보 전쟁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가 단연 돋보인다. 대구시와 대구 국회의원들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 15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팀 단장은 김범일 대구시장과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등 굵직굵직한 대구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을 필두로 대구시 고위 공무원과 대구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별도의 TF팀을 구성, 상임위별 공략 계획을 세웠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온통 지방선거에 선거에 매달려 있다. 무엇보다 강운태·이용섭·주승용 의원 등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당내 후보경선에 '올인'하고 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2년 후 있을 총선에 대비해 자기 사람을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 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최고위원이나 공심위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역구에 특정한 공천방법을 적용해 달라고 매일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단체장들도 선거에 정신이 팔려 예산확보는 뒷전이다.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경선룰을 놓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대립하고 있는 등 정치권이 열린 우리계와 민주계로 나뉘어 지역 이익을 확보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 단체장이 모두 힘을 합해도 국비예산을 따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분열돼 자리다툼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정치인들끼리 싸우다가 지역에 올 국비가 다른 지방으로 가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우자판, 광주 관광레저타운 제안서 제출

돔구장 등 2조5천억 투입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을 주축으로 하는 대기업 컨소시엄이 광주에 돔야구장과 테마파크, 아파트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민자 사업제안서를 접수함에 따라 광주에 종합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과 남광토건으로 이뤄진 대기업 컨소시엄이 2조5천억 원 규모의 '종합레저타운 민자유치 사업제안서'를 이날 광주시에 제출했다. 종합레저타운 민자유치 사업은 지난달 (주)포스코건설이 돔 야구장 건설 사업 제안을 포기하면서 물밑으로 가라앉았으나, 이번에 대우자판 등이 정식으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사업제안서에는 2만5천석 규모의 돔구장 건설을 비롯 전통 음식거리와 전통 가구·공예거리, 골프장, 수영장, 테마파크 등 10여 개의 관광·레저시설을 2조5천억 원대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립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레저타운 부근에 2천500~3천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는 오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한 뒤 일반에 분양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기업 컨소시엄이 수익성 확보차원에서 건설하려는 아파트 세대수는, 애초 포스코 건설이 돔구장 건설의 대가로 지으려했던 아파트 3만여 세대에 비해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레저타운조성사업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제안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31일 대우 측의 제안서를 정식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타당성 용역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에나 컨소시엄과의 협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서구 서창동 일대에 2조 원대의 민간자본을 유치, 야구장과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330만㎡(100만 평)규모의 종합레저·관광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등으로 '관광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알림
전국대회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2010년 호남예술제
접수 : 음악·무용·국악 : 4월 1일(목) ~ 8일(목)
미술·작문 : 5월 6일(목) ~ 13일(목)
주최 : 광주일보사